

## 李대통령 “DJ 서거는 화해 계기” 遺志 실천 기대 크다

(유지)

### 지역민 “탕평인사·균형발전 이뤄지길”

이명박 대통령(사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형성된 ‘화해와 통합’의 시대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향후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호남인사를 중용하는 탕평인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이명박 정부가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소외·낙후지역 출신 인재 중용과 전폭적인 국고 예산 및 현안사업 지원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22차 라디오 및 인터넷 연설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상과 빈소가 화해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이 역사적 장면으로부터 화합과 통합이 바로 시대정신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 사이에는



이미 이념갈등이 약화되고 통합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며 “저는 국정운영에서 ‘통합’을 가장 중심적인 의제로 삼을

것을 천명한 바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 예상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개각은 ‘국민통합형’ 성격을 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광주·전남 등 소외지역과 정파를 망라하는 탕평인사로 통합을 위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실제 개각의 핵심인 국무총리 교체와 관련, ‘호남 총리론’이 급부상하고 각료와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도 호남 출신 인사 중용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론마음에 급급해서는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역 각계는 진정한 국민통합·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장현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이사는 “DJ의 동서화합·지역 상생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폐기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되살려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길이 최우선이다”며 “특히 소외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낙후된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국고 예산 및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연구실장은 “수도권 집중 육성적으로 영·호남 등 비수도권 지자체 경제는 사실상 고사 상태로 몰리고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인 영·호남간 지역 격차를 줄이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남해안 선벨트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DJ의 유지를 계승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나로호 오늘 오후 5시 재발사

최종리허설 성공리 끝내... 날씨 변수 없을 듯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가 리허설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25일 오후 5시에 다시 발사된다.

(관련기사 3면)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24일 나로우주센터 내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발사 준비 리허설이 특이사항 없이 진행됐고 발사일

기상 조건도 구름만 많을 뿐 발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관측돼 예정대로 25일 오후 5시에 나로호를 발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과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전 11시부터 6시간 동안 최종 리허설을 마쳤다. 예행연습은 연료와 산화제 주입을 제외하고 모든 전기적

점검을 비롯해 발사체, 지상설비, 자동발사체 등 각종 부분에 대해 발사 당일과 똑같은 순서로 작업이 진행됐다. 특히 지난 19일 발사 시도에서 7분56초를 남기고 소프트웨어 오류로 1단 로켓의 고압탱크 압력 측정을 잘못 인식해 발사 중지된 만큼 소프트웨어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등 재발사를 위한 준비를 모두 끝낸 상태다.

하지만 발사 도중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지난 19일과 마찬가지로 즉시 발사는 중지된다.

만약 발사가 또 다시 연기될 경우 재발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발사일로 정한 26일까지 재발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발사체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와 관련국에 대한 발사 통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대 우주항공공학과 김재수 교수는 “ICAO 등 국제기구에 다시 발사일을 신청하는데만 8일 정도 걸리는 데다 9월로 넘어갈 경우 불규칙한 기상상황 등에 따라 재발사 일정을 잡는 일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사 연기가 아닌 ‘실패’하게 되면 약 9개월 후 2차 발사가 이뤄지게 된다. 러시아와의 계약에서는 1, 2차 발사에서 한번이라도 발사가 실패하면 나로호 1단 로켓을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다시 받도록 돼 있다.

한편 25일 오후 5시에 나로호가 발사되면 12~13시간이 경과한 26일 새벽 나로호에 실려 올라간 과학기술위성 2호와 첫 교신을 시도한다. 교신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10번째로 자국 땅에서 자력으로 위성을 쏘아 올린 ‘우주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신종플루 예방 손씻기

개학과 맞물려 신종플루에 대한 감염 우려가 커지자 광주 북구청이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손씻기 교육에 나섰다. 북구보건소 간호사의 지도로 세정제로 손을 씻고 있는 어린이의 장난기 어린 표정이 귀엽다. /최현배기자 choi@

## 신종플루 비상... “소풍·운동회 자제를”

교과부 공문... 광주·전남도 휴교·개학연기 잇따를 듯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급 학교에 신종 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 소풍과 운동회, 수학여행, 수련회와 해외여행 등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휴교 또는 개학 연기를 결정하는 학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에 들어간 학교가 20여개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신종 플루 치료제 확보를 위해 긴급 예산배정을 지시하는 등 전국이 신종 플루 대응행동을 앞두고 초비상이 걸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신종 플루 대응행위와 관련, “긴급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신종 플루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신속·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신종 플루 판

단)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이날 오후 관계 부처 차관과 전국 시·도 행정부지사,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신종 플루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24일 188명의 신종 플루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 지금까지 환자누계가 3천11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유엔 제재 결의와 무관”

美 골드버그 조정관

필립 골드버그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4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합의한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날 오전 6차 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교섭상을 만나 기자회견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리 결의 1874호도 인도주의, 개발 목적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며 “금강산이나 개성관광, 개성공단 등

도 이런 맥락에서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다는 게 나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와 관련, “핵 개발 등과 관련한 북한 기업이나 인물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비롯한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며 “대북 제재 조치 뿐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과정인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것이 안보리 결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북·미 양자대화가 가능하다’는 질문에는 “북·미 대화가 앞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양자대화가 있더라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Made in Nature  
로즈워터로 속살까지 촉촉하게!  
에피마스 로즈 에센스 바디워시